

#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 I. 산업 전반

2020년 이후 북한 경제 및 산업에는 UN의 대북 경제제재라는 중기적 요인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및 내부 방역통제라는 단기적 요인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불확정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왔다. 이들 요인이 한 방향으로 작용한 2020년과 2021년에 북한 산업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2022년에는 UN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역량 약화 및 5월에서 8월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가운데, 8월 이후 방역조치의 부분적인 완화에 따른 무역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조건은 농업 생산량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대규모 자연재해가 없어 여타 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2022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은 경공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2017년에 강화된 UN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와 내부 경제활동 통제 그리고 자연재해가 겹친 2020~21년에 북한경제가 단기 저점에 도달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5년째 지속된 UN 대북 경제제재로 금속 소재 및 기계, 수송기계의 수입 중단이 지속되고

\* 본 연구는 한반도경제협력원(2023)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제2부 4장 산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있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노후화된 북한 산업설비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미 설비 부족과 낙후에 시달리고 있던 탄광 등 광산설비의 유지보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계부문에서 탄광 등을 위한 설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물자의 수입 감소는 단천발전소, 김책제철소 및 황해제철소의 신규 산소열법용광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등 핵심 투자사업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제재로 핵심 물자의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면 북한 산업의 중장기적인 회복 및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UN 대북 경제제재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추세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은 국경봉쇄에 따른 대중무역의 감소와 주민 이동통제 등에 따른 내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였는데, 2022년에는 이 요인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무역 상황이 먼저 개선되었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중 육상무역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변화는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21년 연간으로 북중무역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9월경부터는 육상무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해상을 통한 북중무역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개선된 2022년 초에 북한과 중국은 철도를 통한 육상무역을 재개하였다. 그 결과, 4월까지의 북중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한 2억 9,900만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4월 말에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 중국지역에서, 그리고 5월 이후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은 최대방역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무역은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6월 이후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되는 ‘유열자’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8월에는 북한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북중 철도무역이 9월에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22년의 북중무역은 대중수출이 1억 1,528만달러, 대중수입이 7억 7,3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4%와 242% 증가하였다. UN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무역, 특히 수입의 증감은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는 경공업 부문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2022년에 무역이 제한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경공업에 미친 중간재 부족에 따른 가동률 저하 요인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경공업 생산의 증가는 상업·유통 등 서비스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내부 산업활동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9월 정부터 무역이 확대되었는데, 북한의 방역조치 등을 고려하면 수입 중간재가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 1/4분기부터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부분의 생산조건이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연초 다소 완화되던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북한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인정하고, 최대방역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다시 악화되었다.

이 최대방역조치가 북한 산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최대방역조치가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봉쇄와는 다르게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격폐조치’를 포함하는 최대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격폐 조치’는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시군 지역 단위 및 기업소 단위의 격폐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생산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전력, 광업, 중화학 등 전략적인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유열자’가 다수 발생하여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는 광업 부문 등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격폐와 수송문제 등으로 물자 공급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공업은 이미 중간재 부족으로 심각한 가동률 저하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최대방역조치 기간 중에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더라도 연간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미 주민통제와 유통물자 부족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으며, 최대 방역조치 기간 중 시장이 전면적으로 폐쇄된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일부 제한이나 일주일 정도의 폐쇄 조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해가 전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수십만에 달하던 ‘유열자’가 6월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방역조치의 강도도 약화되었다.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력 공급 감소가 주로 5월에 대규모로 발생한 ‘유열자’의 격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열자’가 급속하게 감소한 6월 이후에는 생산 차질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한 8월 이후에는 무역 통제만이 아니라 이동 통제 등 내부 통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제약도 상당 정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공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였던 서비스 산업의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의 확대와 경공업의 회복도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 경공업과 서비스업인데, 코로나19 방역이 다소 완화된 2022년에는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2년차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였지만, 금속과 화학 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평양과 지방의 주택건설 확대 정책 및 기초 소비재와 학생용품 등의 생산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단기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II. 산업별 동향

### 1. 전력과 광업

노동신문 등에서는 전력부문에 계획의 완수 등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수력과 화력 모두에서 발전량의 별다른 증감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력부문은 봄기름이 심했지만 5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서서 수량 부족에 의한 발전량 감소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력발전은 UN 경제제재에 의한 설비 유지보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탄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발전소 단위의 설비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이 지속되고 있어 발전량이 전년 수준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발전부문의 계획목표가 2021년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3년 1월 17~18일 기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가 ‘발전부문이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발전량이 2021년에 비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21년의 발전량이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2년에는 전년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부문의 가장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인 단천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보도 빈도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구체적인 성과도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랑천3호발전소의 준공이 가장 크게 보도되었다.

광업 역시 전년에 비해 변화 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생산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유지보수의 어려움에 따른 설비역량 약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가 연중 지속됨에 따라 생산 차질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2년에는 복구가 대부분 완료되어 이 요인에 의한 비철금속 등의 생산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석탄 밀수출이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같은 해 전체 석탄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요인도 2022년에는 해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의 석탄 밀수출 동향에 대한 의미 있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전년에 밀수출이 크게 줄었고,<sup>2)</sup> 방역 완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밀수출이 전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서 광업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5~7월의 최대방역조치 기간 중 광산에 대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은 2022년 광업 생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제조업

중화학공업은 2017년 이후 지속된 UN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대외무역 위축의 영향을 경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동시에 2022년의 대외무역 확대가 중화학공업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인 동시에 생산규모가 투입 노동력보다는 설비 가동률이나 설비 생산성, 중간재 투입규모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2022년 초 방역조치의 부분적인 완화나 5~7월 최대방역조치의 시행, 8월 이후 방역 조치의 완화 등도 연간 생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중화학공업은 산소열법용광로 및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등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설비 투자활동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생산도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책제철소 산소열법용광로의 가동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금속산업 전반의 생산수준이 전년도보다 의미 있는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 등 여타 부문의 설비투자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금속 소재의 공급은 평양 1만세대 등 주택건설 부문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핵심 화학 플랜트의 생산활동에서도 별다른 증감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료 생산은 소폭이지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상반기에 비료 생산이 다소 차질이 있었던

1) 2020년에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김덕지구의 경우 2021년에도 복구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게 보도된 데 반해, 2022년에는 복구에 관한 기사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년에 이어 대규모 주택건설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2) UN 대북경제제재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 규모는 55만톤 정도인데, 이는 450만톤 정도로 추정되는 202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이다.

것으로 보이거나 하반기에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하였다고 보도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역시 증설된 설비가 만가동되는 등 적어도 전년 수준의 생산은 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순천인비료공장의 생산 성과에 대한 보도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동 공장은 아직 완전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는 화학공업 중하류 부문의 가동률도 다소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UN 제재에 따른 금속과 기계류의 수입 중단으로 기계공업의 전반적인 위축상황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2년에는 농업기계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북한 최대 농기계 공장인 금성트랙도르공장의 1단계 개진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수천 대의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는 등 농기계 분야에서는 다소나마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건설이 핵심적인 경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설자재, 특히 내부에서 공급되는 시멘트부문은 전년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원세멘트와 순천세멘트 등 핵심 시멘트 공장의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시·군발전법, 시·군 세멘트지원법 등을 통하여 지방 주도의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김화군 지방산업공장 현대화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모범으로 하여 각 지역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건설활동을 위해 지방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지방 건재부문의 생산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경공업은 다소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 등 핵심 소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북한 경공업은 2020년에 정부 정책으로 초래된 공급망 붕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지방 원자재를 통한 생산 확대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 중간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류(hs54, 55)가 전년 대비 477% 이상 증가한 6,752만달러 규모로 수입된 것을 비롯하여 플라스틱(hs39)이 223% 증가한 1억 1,711달러, 당류 및 설탕이 534% 증가한 3,048만달러, 대두유가 627% 증가한 4,913만달러 규모로 수입되었다. 2020년 연말에 수입이 적지 않게 증가한 식품류의 수입규모는 2020년 수준에 못 미치지만, 섬유류와 플라스틱 등 여타 중간재의 수입규모는 2020년 연간 수입 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중간재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재 부족에 시달리던 경공업 설비 가동률이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역시 최대방역조치에 의한 일시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 상황을 겪었을 것이지만 노동력이 아니라 중간재의 공급 상황이 가동률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에 비해 가동률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중·대규모 경공업 공장의 가동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공업의 지방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중·대규모 경공업 기업의 동향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시, 도에서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가운데, 2021년에 언급되었던 김화군 지방산업공장들이 6월 21일에 준공되었으며, 이후 이를 모범으로 하여 전국 지방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화군의 경공업 공장 현대화라는 것이 옷공장 등 10개 미만의 중소기업을 한곳에 집적하고, 설비를 다소 개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주요 경공업 관련 중간재 수입 동향

(단위: 천달러, %)

	섬유류 (hs54+hs55)	플라스틱 (hs39)	당류 및 설탕 (hs17)	대두유 (hs1507)	밀가루 (hs1101)
2016	258,231(48.2)	204,548(21.7)	3,779(-32.0)	98,110(-5.6)	2,535(-55.1)
2017	298,485(15.6)	231,388(13.1)	38,655(922.9)	111,442(13.6)	32,623(1,186.7)
2018	191,561(-35.8)	221,772(-4.2)	40,011(3.5)	135,631(21.7)	63,047(93.3)
2019	156,087(-18.5)	274,558(23.8)	44,395(11.0)	122,859(-9.4)	73,177(16.1)
2020	27,463(-82.4)	35,790(-87.0)	32,490(-26.8)	65,835(-46.4)	35,478(-51.5)
2021	141,48(-48.5)	36,257(1.4)	4,805(-85.2)	6,757(-89.7)	340(-99.0)
2022	67,522(477.3)	117,114(222.8)	30,476(534.2)	49,134(627.2)	18,927(5461.8)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 2023. 1. 27.)

### 3. 건설 및 서비스산업

건설분야는 2021년에 이어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평양시의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가 준공된 데 이어 화성지구 1만세대 건설사업이 상당 정도 진전되었으며, 연포온실농장, 검덕지구 등의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에는 2021년 말의 당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사회주의농촌건설 노선에 따라 농촌 주택 건설을 포함한 농촌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말, 연초에 전국 여러 곳에서 수백 채 단위의 농촌 주택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식을 거행하는 동향이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상산농장 소재지 등 40여 곳의 농촌 주택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식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단천발전소 건설이나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메탄을 생산공정 건설 등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은

전년에 이어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평양 1만세대와 검덕지구 수천세대 등 대규모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부문의 활성화는 2021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어서 2022년에 건설부문의 추가적인 성장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무역 증가와 경공업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및 북한산 소비재 유통 증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으로 상업·유통 등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까지 크게 줄어들었던 평양 등 대도시의 유통망에 식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산 소비재의 공급 역시 제한적이지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방역조치는 서비스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최대방역조치가 시행되던 기간(5월~8월 초)에 시장 개장 기간을 줄이고, 일부 지역에는 일주일 정도의 폐장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한 8월 이후의 방역 완화 조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정부는 8월 초 코로나19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2020년부터 금지되었던 해수욕을 허용하였으며, 내국인 관광과 휴양에 대한 통제를 상당폭 완화하였다. 그리고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전국구두상품전시회, 전국여성옷전시회2022, 밀가루음식전시회 등 경제분야의 대규모 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유통만이 아니라 운수, 관광, 음식 및 숙박, 컨벤션 등 다양한 서비스활동 부문의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UN 대북 경제제재 이후 지속되는 경기 후퇴로 북한주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되어 이러한 서비스 공급 여건 개선이 실제 서비스의 구매로 연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소비재와 서비스를 구매할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공급제한 완화가 실제 거래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 III.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 1. 2022년 평가

본고에서는 2022년에 농업을 제외한 산업 및 실물 부문이 2021년에 비해 소폭이지만 성장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UN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에 따른 중기적인 경제 후퇴 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최대방역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요인에 비해 무역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입 확대와 8월 이후의 방역조치 완화 등 개선 요인이 미약하지만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전력, 광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 큰 증감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경공업,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공업은 중간재 공급 확대에 따라 가동률이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비스업은 수입 및 내수용 상품 공급 증가와 8월 이후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상업·유통, 운수, 음식 및 숙박, 컨벤션 업 등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이후 단기적인 경제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설업은 평양 등 대규모 주택건설의 지속과 농촌 건설사업 등으로 전년에 이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단기적인 회복이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UN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무역 축소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던 2020~21년 이 북한경제의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제한적인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보 부족 등으로 본고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요인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고는 공급 측면의 상황 개선을 토대로 경제성과를 추정하였는데, 수요 측면의 악화가 이를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산업부문에서 중간재 등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 있어 공급 측면의 상황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 및 실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2017년의 UN 대북 경제제재 이후 지속적인 경제 후퇴에 따라 북한주민의 소득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저하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공급 측 요인만으로 북한경제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구매력 저하에 따른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경공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비스업과 경공업이 2022년 북한경제의 회복을 주도할 분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하락에 의하여 이들 산업이 성장이 아니라 후퇴하였다면, 북한 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의 소득 감소에 따라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었다면, 시장과 연계된 국영제조업, 특히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상황 역시 악화일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최대방역조치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 기간 중 노동력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이후의 방역 완화 조치로 충분히 상쇄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최대방역기간 중 광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을 호소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영향이 있었으며, 영업시간 축소 등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생산물자의 수송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8월 이후의 방역 조치 완화가 실제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얼마나 완화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UN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에 따른 산업설비의 생산역량 약화에 따른 생산 감소 효과가 무역 확대 등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요인을 북한경제의 중기적인 후퇴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2018년경부터 광산 등에 대한 설비 및 부품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설비 노후화에 따른 생산 감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 2023년 전망

2023년 북한의 산업은 2022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초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은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겨울에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중 철도무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3년의 북중무역 규모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입 중간재를 가공하여 수출 및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섬유류, 식품가공, 생활용품 등 경공업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상업·유통, 운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회복세도 지속될 것이다.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도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사실상 단절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가 2023년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소비재 공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의 대러 의류 임가공 수출 및 원유 수입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연내에 개선되고, 북한의 내부 통제 완화가 지속될 경우 2023년에 중국인의 대북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인 관광이 재개되면 서비스산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중 철도무역의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북한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가 북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3)</sup> 둘째,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심화될 경우 북중 경제관계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2017년 이후 지속된 UN 대북 경제제재와 그로 인한 경제적 후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2023년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UN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경제가 2016년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금속 및 기계류 수입 감소에 의한 설비역량 약화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에는 단기간에 그치고 생산활동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석탄, 철광석, 의류 등 핵심 상품의 수출이 봉쇄된 상황에서 비제재 수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외화 부족에 대해 결국은 수입 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수입의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도 중앙정부에 의한 수입의 일정한 제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수출입 모두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역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역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북한은 호흡기 질환의 증가를 이유로 1월 25-29일간 주민 의출을 통제하는 등 평양에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5월과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여전히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을 상정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